



이후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 전개와 위상 전경

## 의 전시가 갖는 의미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  
상 전 5.26~7.23 김달진미술자료 박물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떤 사건의 사용되기도 하며, 어떤 일을 추억하게 하는 계기가, 특정 분야의 역사를 추측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술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한국미술 역사를 정보 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특정 기록들을 소 만들어 낸다. 이러한 '기록의 전시'는 다양한 문 열망하는 한국현대미술계에서 색다른 장르를 선 또한 하고 있다.

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외국 진출이나 타국과의 문 는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불과 50여 신문기사로나마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한국 국 전시소식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클릭 몇 번 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었다. 이렇게 편한 원하 공방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이번 전시는 아카이브 국내에 정립하게 된 과정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다.

에는 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작가들의 외 임라인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전시는 박물관 있거나 타 기관에서 대여한 각종 팸플릿, 티켓, 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이트큐브에서 보아오던 형식이 매우 다르다. 역사와 기록에 초점을 둔 이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보는 듯하다.

기록을 전시해 둔 공간은 1960년대에 열린 상파울 파리비엔날레 및 도쿄국제판화비엔날레 등에 한 참여했던 전시를 포함해 연도순으로 구성되었다. 을 보여주듯 낡은 책자들 속 작가들의 작품 사진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깔끔한 자료들과는 그 느낌이 . 1962년 제1회 사이공국제비엔날레에서 정창섭 수상한 것, 1963년 제7회 상파울로비엔날레에서 명예상을 수상한 사실 등도 기록되어 있다. 한국 0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당시 국내 상황을 생각해 전시나 수상이 대단한 성과였음을 짐작할 수 있 임으로 국내 작가들의 외국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양한 도록 및 포스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에 마련된 좌대 중에서는 전수현 작가의 베니스비 및 관련문서가 돋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 이 세계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결 이와 같은 행사였기 때문이다. 1995년은 베니스비 국관을 개관하고 전수현이 특별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국내 최초로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해 미술사적 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의 해외진출 전개와 위상>전은 해외진출 전시에 관한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시장 한편에는 작가들의 국제 진출관련 신문기사 및 당시 미술비평 자료들도 비치되어 있다. 외국진출 초반인 1960년대 후반에는 간단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각종 신문의 한구석에 전시 소식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 과하고 작가들의 진출이 잦아지자 신문의 사설에서도 이에 대 해 논의하는 등 사회의 이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습이 보인 다. 또한 당시에는 활발하지 못해 흔치 않은 미술비평 자료들을 직접 찾아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당시 쟁점이 된 문 제는 무엇이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아카이브 또한 전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독특한 콘셉트로 한국현대미술이 걸어온 발자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된 이번 전시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역할 및 목적이 잘 드러난다.

● 김혜영 객원기자

## 살풍경을 통한 인간의 연민

김진언 전 7.7~8.6 갤러리2

뉴욕 맨해튼을 방문했던 작가는 초콜릿 회사인 M&M사의 간 판을 보고, 이 이니셜에 대한 자유연상을 하다 작품 구상을 시 작했다.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도시라는 삶의 공간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진 작가는 현실로 돌아와 달콤한 기호들의 도시를 그렸다.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최소한의 재료만을 가지고 종이 위에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작 가는 예전 작업에서 알루미늄 위에 수작업으로 출력해 화려한 화면구성과 사실적인 표현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번 개인전에 서 선보인 작품들은 오랫동안 다루던 금속을 이용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그를 빼고 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전 작업에서 작가 가 금속을 종이처럼 표면재료로 사용했다면, 이번엔 종이 상에

위치한 2차원 평면세계에 금속을 끌어들이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관객과 상봉한다. 특히 그 스타일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2~4미터를 넘나드는 거대 연필화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작가 의 작업들에 작가 스스로가 모진 숙청을 감행해 탄생한 결과물 이다. 확실히 기존의 알루미늄 위를 장식했던 사실적이고 세밀 한 이미지들이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기는 했으나 작품 자체 가 자연 발산하는 의미들을 한정짓게 되는 문제점을 무시하지 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작가가 자신의 표현에 전면적으로 가한 수정은 기존의 작품 스타일이 만든 틀을 깨면서 그녀가 나타내 고자 하는 세계를 꼬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3면의 벽을 점유한 미색의 장막들은 기호들만의 공간이며 다양한 이미지를 함축 한 비옥한 토양으로써 기호들이 생성하는 무한의 내러티브를 끌어안는다. 종이위에 나열된 사람, 별, 하트, 나무의 기호들은 금속의 재질로 표현되었음에도 온기를 지녔다. 이는 이 기호들 이 서방세계의 크리스마스 쿠키 틀과 동일한 모습을 채용하여 나타나는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자 틀의 집합들이 마냥 따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세계는 요소 하나 하나를 뜯어보는 재미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자 틀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릴 이미지를 이용해 작가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숨겨둔 것이다. 그림 속 과 자 틀이 상징하는 것은 달콤하고 따뜻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일 한 모양을 마구잡이로 찍어낸 듯 똑같은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 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틀 사이로 모습을 내비치는 거대 도시 맨해튼의 이미지는 웅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게 덧없게 느껴진다. 그녀의 작업의 시초가 된 살풍경한 현대 도 시의 모습과 그 공간의 거주민들은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사랑 처럼 백색의 공간 위를 배회한다. 일생을 바쳐 거대한 도시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과 화려하게 빛나면서도 그 실체는 허위허 식으로 가득한 음울한 회색의 도시. 정교하게 망가진 도시 안 에서 결국엔 인간 모두가 특색 없는 밋밋한 존재가 되는 과정 을 지켜보는 작가의 동정어린 시선은 지치고 고독한 삶을 부드 럽게 어루만진다.

● 진정윤 수습기자



〈M&amp;M〉 전경